

그들에게 너의 미래를 맡기지 마라

전문가칼럼 -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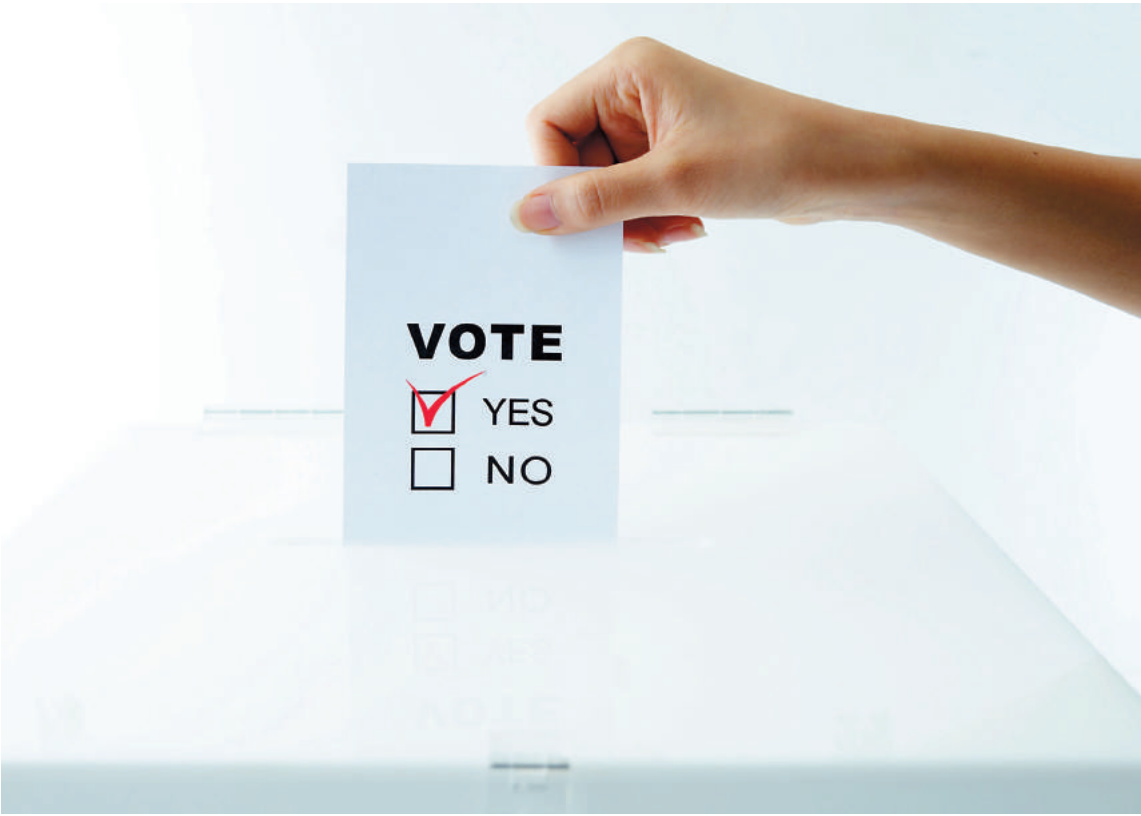
임형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고대 민주정치의 본산인 그리스 아테네의 현인들은 민주주의를 ‘무식한 다수가 선택하는 매우 나쁜 정치체제’로 규정했다. 특히 플라톤에게 중우(衆愚)정치에 불과했던 민주주의는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그리고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이 드러나는 정치체제’였다. 결국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현자를 못 알아보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북한마저도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지금의 독재국가들마저 모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도대체 민주주의의 장점이 무엇이기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민주주의가 많은 나라들의 정치체제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국민 정치참여의 유일한 방법 남은 것이 투표행위

BC 5세기의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정치체제였다. 첫째, 법 앞의 평등, 둘째, 국민의 정치참여, 셋째, 공직자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2500여 년 전의 이론임에도 오늘날까지 그 근본 원칙은 큰 변화 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이다. 아테네 시민들에 있어서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1년씩은 반드시 봉사하는 평의원을 역임해야 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치면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평의원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탱시킨 원동력이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오늘의 민주주의와 참여는 어떠한가. 솔직히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직접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가 된지는 오래다.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에 반영시켜 준다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국민은 점차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언론과 NGO 등 역시 제한적이다. 결국 국민의 정치참여의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이 바로 투표행위이다. 오직 투표만이 가장 확실하게 나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착된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의 현실이 되고 있다.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연일 관련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교정 밖을 나서는 순간 자신들을 알리는 각 당 후보자들의 홍

보물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들의 인사가 넘쳐난다. 여야당 모두 공천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섰다. 공천결과를 놓고도 말이 많다. ‘알파 박’과 ‘알파 김’이라는 여당의 주인과 야당의 임대 사장이 묻지마 공천을 강행했고 분노하는 지지자들은 아랑곳없이 여당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와 정책대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선진국, 선거연령 고등학생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선거의식 절박

여전히 자신이 국회의원 후보인지 아니면 지역 개발의 역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들이나 국회의원은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직업이 아니라 선거 때 뿐이지만 맘대로 부릴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모두 최악의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도 날짜는 다가온다. 어찌되었던 선택은 하야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투표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절박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가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그 분노가 투

표의 포기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노리는 고도의 기획이 숨어져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른바 정치혐오증. 가장 순수하고 이성적인 대학생만큼 이 전략이 유용한 층도 없다. 정치를 혐오하게 해서 모두의 무관심을 유도하고 나면 결국은 그 혐오의 대상들만의 정치판이 짜인다. 대학생이 선거를 외면하는 사회,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10년 동안 해외로 유배를 보내는 도편추방제가 없는 오늘의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다수의 선택으로 그들을 선거에서 낙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수는 플라톤이 지적한 무식한 다수가 아니라 각성된 그리고 깨어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이다. 그 민주시민의 전위에는 늘 지성인이 있었다. 바로 지금의 대학생들이다. 선진국은 선거연령을 고등학생으로 낮추는 판에 우리 대학생들의 바른 의식이 절박하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사회는 오직 투표로서만 가능하다.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이며 시대정신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들에게 결코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참여마당

양나래
(국어국문학 2015)



새로움과 낯섬

서점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대개 비슷한 배경을 떠올리고, 비슷한 분위기를 느낀다. 서점을 가득 채운 수많은 책들, 오가는 많은 사람들, 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비치된 컴퓨터. 사방을 둘러싼 책들 사이에 있을 때의 웅지 모를 설렘과,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책 한 권을 사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곳, 그곳이 바로 서점이다. 이미지와 분위기가 압도적인 곳이 우리가 아는 서점이다. 우리는 학교 정문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서점을 갈 수 있고, 지하철 몇 정거장만 지나면 대형 서점도 찾을 수 있다. 눈에 익은 풍경들이 반기는 일반적인 서점이다. 그런데 그런 익숙한 서점도 좋지 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에 설렘 수 있는 서점을 가보는 건 어떨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서 약간은 비켜선 조금은 다른 서점 말이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서점’ 보다는 ‘책방’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그 작은 책방들에서는 평소 우리가 찾던 큰 서점들에게선 받지 못했던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길을 따라 걷다 우연히 들여다 본 창문 너머로 어지럽게 정리되어있는 책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한 잔 하는 사람 두어 명. 장르별로 책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검색을 위한 컴퓨터가 놓여 있지도 않은, 오래된 듯 또 익숙한 듯한 묘한 낯섬이 반기는 곳. 작가가 아니라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곳.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시야 뒤 편 어느 곳에는 그런 소소한 책방들이 골목길 사이사이에 숨어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소박하게 일궈진 책방은 우리를 새로운 감정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일상적인 나날들 사이에 소박하지만 애뜻한 것을 모아둔 분위기라고 하면 그 공간이 지닌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차분하지만 들쭉거리는 그런 곳. 작은 책방에 들어서며 마주했던 놀라움은 어쩌면 반복되는 하루와 지겨울 만큼 마주치는 풍경들 속에서 조금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만 같다. 매일 밥을 먹다가 어느 하루는 빵을, 또 어느 하루는 파스타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작은 책방이 주는 새로움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필요했던 신선함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신선함은 마음 속 어딘가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결핍을 맞닥뜨리며 그 자리를 채워줬을 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혹자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자신의 삶을 움직인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야말로 삶을 안온하게 해주는 덕목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달리 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평이하지도 않은 삶의 흐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직 뚜렷하게 잘 모르겠다면, 가끔은 낯선 책방을 찾아 그 곳이 주는 느낌을 온전히 마주하며 내게 결핍돼있는 것이 혹시 돈이나 시간이 아닌, 소박하지만 애뜻한 감정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소박하고 애뜻한 그 ‘무엇’을 헤아려 찾아본다면, 낯 작은 책방 앞으로 이끌었던 그 마음 역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새로움과 낯섬의 설렘으로 이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그리고 마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어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그러기에 참 좋은 봄날이 오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사랑의 불가능성, 에로스의 종말은 이렇게 찾아온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목록들에 비추어본 사랑, 내가 나를 갖고자 때 달리는 나르키소스적인 사랑일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 존재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의 자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 한 마디로 의지와 행위의 주인이었던 나를 온전히 너에게로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오직 타자로부터만 온다.

타자의 얼굴은 그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이전까지 그는 하나의 사물이거나 잠재적인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임을 포기하자, 그는 사회적인 옷들을 벗어던진 인간의 가장 솔직한 얼굴을 드러낸다. 때로 그 얼굴은 경멸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발가벗고 있는 가장 나약한



우리는 흔히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습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오랜 시간 망각된 인간의 인간다움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 타자와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다가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내가 나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근대적인 개인을 포기하고 진정한 ‘주체’가 되라

고 했다. 주체(subject)란 우주 속에 홀로 서있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sub-) 밀어 올려주는(-jection)는 자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은 외롭게 자신만을 반복하고 경험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타자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언어는 단순히 인간이 사회화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타자를 맞아들이고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열어내는 창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동사보다는 타동사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자동사가 어떤 관계도 거부하고 나의 존재함만을 주장한다면, 타동사는 타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손 내밀기와 같다.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타자는 고독과 불안 속에 갇혀 있던 나를 탈출시키고 구원해준다. 타자를 향한 사랑은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윤리적인 인간으로 변신하게 해준다. 인간이 동물이기를 멈추고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타자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에게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안전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지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을 방문해 주세요.